

▶▶ 협회소식



◀ 제31차 상임이사회

- 일시 : 2006. 3. 2(목)
- 장소 : 본회 대회의실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전공의 노조 관련 공약제시에 따른 협회차원의 대응으로 '전국의 의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채택해 발송기로 했다.

▶ 병원협회 회장단 복지부 장관과 면담

- 일시 : 2006. 3. 22(수)
- 장소 : 보건복지부 장관실

본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병원계 현황과 함께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유 회장은 유 장관에게 병원 현황과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 국제병원연맹 지역회의

- 일시 : 2006. 4. 2(일) ~ 6(목)
- 장소 : 대만 타이페이

2006 IHF(국제병원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병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만 타이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아태 지역회의는 '인류의 건강-21세기 병원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사흘간 병원 재무 회계 연구, 의료 질관리와 환자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기초연설과, 환자안전,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개발도상국가의 병원경영 발전 등의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대만 지역회의에 병원협회에선 유태전 회장을 비롯 김광태 전회장, 김철수 부회장, 박정규 상근부회장, 박상근 총무위원장, 안명문 국제이사과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병원장 및 병원임직원 등 35명이 참가했다.





◀ 선택진료제 관련 공청회

- 일시 : 2006. 4. 5(수)
- 장소 : 국회도서관 회의실

국회 현애자의원실 주체로 열린 선택진료제 관련 공청회에서 분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토론을 통해 "선택진료제 도입배경은 국민 건강권을 보상받도록 하는데 있으며,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에게 자금을 고양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로 폐지시 기존 선택진료의사의 사기저하로 의료의 질 및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제도 존속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 일시 : 2006. 4. 13(목)
- 장소 : 본회 대회의실

전공의 노조 설립 추진에 대해 노조설립 자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입원환자 급여 식대에 대해서는 4.10 건강심 결과 수용불가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채택했다.



◀ '병원식대 무엇이 문제인가' 대담 출연

- 일시 : 2006. 4. 17(월) 13:00
- 장소 : KBS 스튜디오

분회 정영희 보험이사는 KBS 1TV 생방송 '세상의 중심'에서 병원식대문제 대담 코너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식대 수준(기본식 3390원)으로는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적정가격을 밀도는 식대 책정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접적으로는 35만 병원종사자 뿐 아니라 식사질 저하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급여식대수준 조정을 호소했다.



▶▶ 협회소식



◀ 민간의료보험(KPPO) 정기총회

- 일시 : 2006. 4. 19(수)
- 장소 : 63빌딩 코스모스홀

민간의료보험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KPPO가 공식 출범했다.

김철수 KPPO 운영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의체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에서 KPPO 박용남 간사의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으며,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특강에서 민간보험과 정부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00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병원신문 창간 2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06. 4. 21(금)
- 장소 :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2006년도 사업목표를 '병원산업 세계화 기반 구축의 해'로 한 세부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도병원회 건의 안건을 채택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다. 병원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선 백성길 부회장이 중외봉사상을 받았으며, 공로상과 언론상을 시상했다.



◀ 유희탁 의장, 병·의협 가교역 혼신

- 일시 : 2006. 4. 22(토)
- 장소 : COEX

본회 유희탁 법제위원장이 22일 COEX에서 열린 제58차 의협대의원총회에서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에 당선된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은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장은 의료계 대동단결론을 강조하면서 정책사안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유 의장은 의협과 병협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정책과제에 대해 (공동 분모를 도출토록) 숙의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